

제6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9. 12. 23.(수) 11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이병기 위 원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」 일부 개정에 관한 건 (2009-62-279)

○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규제적 적시성 제고,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」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

○ 주요 개정 내용

① 사업자간 합병 및 결합판매 증가 등 시장상황 반영

- **(영업권 인식 근거 등)** 합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인 비용 배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영업권 인식 및 인수·합병시 합병전 법인의 영업보고서 제출 근거를 마련
- **(결합판매 수익 배부)** 결합판매에 따른 서비스별 수익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합판매 수익은 요금적정성 심사시 제출한 서비스별 할인율을 우선 적용하여 배부하도록 개정
- **(결합판매 비용 배부)** 서비스별 원가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판매와 단품판매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비용을 별도로 분류하여 배부하도록 개정

② 회계정보의 투명성 강화

- **(회계분리지침서 공개)** 통신사업자간 회계분리지침서를 상호 공유하여 영업보고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분리지침서의 공개 근거를 마련
- **(경영자 확인서 제출)** 경영자에게 회계분리 및 보고에 대한 의무를 주지시켜 영업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, 「영업보고서 경영자 확인서」의 제출 근거를 마련
- **(마케팅 비용 세부명세서 제출)** 단말기 보조금 규모 파악 등을 위해 마케팅 비용 세부 명세서의 제출 근거를 마련

2)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(2009-62-280)

○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3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'09. 10. 31로 만료됨에 따라, 방송법 제3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의하여 총 7인의 후보자를 제4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동의기로 의결함

○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 (총 7인)

구 분	성명	성별	출생년도	현 직	비고
위원장	송도균	남	43년생	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	연임
법률 분야	홍대식	남	65년생	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	연임
	서영득	남	59년생	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	신규
	오양호	남	62년생	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	연임
회계 분야	권장시	남	56년생	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	연임
신문방송 분야	이종수	여	59년생	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교수	연임
	박천일	남	61년생	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	신규 (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)

3) 「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(2009-62-281)

○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선박 조난신호를 자동 발사하는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(EPIRB=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) 검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「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」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

○ 주요 개정 내용

① EPIRB의 유효기간 준수 및 설치장소 관리 강화

- 검사시 잔여유효기간(EPIRB 전지(4년)·자동이탈장치(2년))이 1년 미만인 경우, 검사 이후 이를 교체하고 증명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
- 검사시 EPIRB 설치장소가 선박으로부터 쉽게 이탈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, '부적합' 조치하도록 검사기준 강화

② 행안부 '서식정비지침'에 따라 민원 서식의 통일성·일관성 확보

- 서식의 지질을 신문용지 54g/m² → 일반용지 60g/m²로 변경 등

4) 「2010년도 디지털 전환 활성화 시행계획」에 관한 건 (2009-62-282)

○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(직무대리)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'12년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「2010년도 디지털 전환 활성화 시행계획」을 원안대로 의결함

o 주요 추진 계획

① 방송설비의 디지털 전환 추진

- 지상파방송사는 방송보조국(270개)을 디지털화하여 전환율 39.2% 수준을 달성하고, 아날로그·SD급 제작시설 54개를 HD로 전환하여 전환율 70.5%를 달성
-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설비의 구축(7개 SO), 위성방송의 HD채널 확대(60개 채널) 등을 통한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추진
-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융자(220억원), 관세감면(4%)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

② 디지털TV 등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 확대

-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를 모든 TV 및 관련 전자제품으로 확대하고, 디지털TV의 확대 보급방안을 마련
 - 디지털 전환에 따른 페브라운관TV의 회수 및 재활용 대책을 마련·추진
- ※ 디지털TV 수요 증가 등으로 '12년 전후로 연 150만대의 페브라운관TV 배출 예상

③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시청자 지원체계 구축

-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 자막고지 방송을 현재 방송시작 전·후에서 주시청시간대(19:00~23:00)로 확대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
- 시청자의 디지털 전환 상담,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「디지털 전환 추진협의회」, 콜센터 등 전국적인 시청자 지원체계를 구축

④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

-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를 위해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¹⁾ 설치(10개), 아날로그 마을 공시청시설²⁾(154개소)의 디지털화 등 추진
- ※ 난시청 해소 의무 주체인 KBS는 '12년까지 37.9만 난시청 세대 해소('10년 3.2만 세대)
- 1) 주송신기와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10mW이하 중계기
 - 2) 공시청시설과 유선망을 활용하여 난시청 해소
- 공공임대주택(62단지), 민영공동주택(900단지), 저소득층 세대(400세대) 등의 노후한 TV 수신설비 개선을 추진

⑤ 취약계층 지원 등 디지털방송 기반 확충

- 디지털방송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및 「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을 추진
-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'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' 건립, 일체TV 등 차세대방송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&D 등을 추진

5) 「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」에 관한 건 (2009-62-283)

○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(직무대리)으로부터 울진군, 강진군, 단양군 등 3개 지역에서 아날로그 TV방송을 선행 종료하는 「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시행계획」을 보고받고,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함

○ 주요 추진 계획

① 지역주민 홍보

- **(주민설명회)** 마을이장,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설명
- **(홍보활동)** 지역언론 및 지역축제(울진 대계·강진 청자 등)와 연계하여 홍보
- **(자막방송)** 아날로그방송 종료 5개월 전부터 주시청 시간대(18~20시)에 디지털 전환 안내 자막방송(2~3분)을 지속적으로 실시

② 아날로그방송 종료

- **(디지털방송 개시)** 방송사는 '10년 상반기 디지털방송을 개시
 - ※ 방통위는 분산중계기, 자막발생기 등 디지털방송 송신인프라의 구축을 지원
- **(가상종료)** 아날로그방송 종료 1개월 전부터 정규 방송을 일시 중단(1~5분)하고 안내자막을 송출하는 가상종료를 3회 이상 실시
- **(아날로그방송 종료)** 9월부터 울진, 강진, 단양 순으로 순차 종료

구 분	울진군	강진군	단양군
디지털 TV방송 개시	'10. 5월	'10. 6월	'10. 6월
아날로그 TV방송 종료	9. 1(수), 14:00	10. 6(수), 14:00	11. 3(수), 14:00

※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에서 디지털 TV방송 개시,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마련('09. 10월)

- **(미전환자 대책)** 디지털 전환 미전환자에게 전환을 안내하고,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아날로그 KBS1-TV는 30일간 연장운용 조치

③ 직접수신세대에 디지털방송 수신기 지원

- **(지원방법)** 저소득층, 노인·장애인 및 일반세대로 구분하여 지원
 -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: 디지털 컨버터 1대 무상 제공 또는 디지털 TV 구매 보조(다수모델 선정, 10만원 지원)를 선택적으로 지원
 - ※ 디지털 TV 구매 보조에서 당초 '32인치 이하 다수모델 선정, 10만원 지원'이 '다수모델 선정, 10만원 지원'으로 수정됨
 - 노인(만65세 이상)·장애인 : 디지털 컨버터 설치 등 기술적 지원
 - 일반세대 : 디지털 컨버터 1대 무료 임대(예치금 1만원, 3년후 양도)

④ 난시청 및 수신환경 개선

- 디지털방송 시청이 곤란한 직접수신세대에 대해 안테나 보수 지원
-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발생시 KBS가 적극 해소하고, 방통위는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 등을 통해 난시청 해소를 지원

⑤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분석

-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, 2012년 디지털 전환 계획에 반영

사. 보고사항

1) 「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」에 관한 사항

- 최재유 융합정책관으로부터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콘텐츠의 기획, 제작, 유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「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」에 대한 보고를 받고,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① 건축 및 시설 계획

-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류월드에 3년간 총사업비 1,992억원(분양 적용시, 부지 10,702㎡, 건축연면적 55,952㎡)의 복합 지원시설 건립

- 한류월드는 주변 복합단지 시설과의 산업벨트 조성 가능, 접근성 우수
- 총사업비의 경우, 방통위는 방송발전기금에서 토지매입비, 설계비, 방송장비비 등을 편성, 문화부는 일반회계에서 건축·토목공사비 등을 편성
- '10년도 예산안 : 총 100억원으로서 방통위 80억원, 문화부 20억원
- HD, 3D, 양방향 등 미래 수요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·송출 시설 구축
- 제작시설은 스튜디오(1,736㎡ 1개, 1,035㎡ 1개, 496㎡ 4개), 편집실 16개, 중계차 등으로 구성하고, 기타시설은 송출실(15채널), 콘텐츠저장실, 업무시설, 교육시설 등으로 구성
- 건물 기능의 효율성, 주변 환경과의 조화,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시설 배치 (지상 18층, 지하 4층 예정)
- 방송콘텐츠 제작시설은 저층부(1~6층)에, 업무시설은 고층부(7~18층)에 배치
- 시설 이용 대상은 우선 영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, 독립제작사 등임
 - ※ 시설 이용 대상 중 당초 '영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, 독립제작사 등'을 '우선 영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, 독립제작사 등'으로 수정

② 시설 조성 및 운영 방법

-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시행
- 방통위와 문화부가 공동 추진하고, 건축·콘텐츠 전문가로 사업추진단을 구성
- 건설공사 전문성 및 공사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조달청 공사관리제 및 일괄입찰(턴키) 방식을 적용
- 총사업비 재원조정시 반영된 시설분양은 시설 운영의 효율적 측면 고려하여 임대료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
- 건립후 토지·건물 등의 소유는 정부가, 시설운영은 양 산하기관(한국전파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)이 담당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기로 함

6. 폐 회 (12:20)